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잘리고 잘려 단단한 쇠와같이 단르고 단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네는 경남중고교

# 경남중고동창회보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www.kyungnam.or.kr

단기 4333년 (음력 11월 23일)

경남중고동창회보 1968년 6월1일 창간

Kyungnam Middle & High School Alumni Bulletin

2005년 12월24일 토요일 제 357호



'05용마의 밤 1,100여명 모여 감동 속 격려

## “도약의 새 지평 위해 ‘결속때’ 펼치자”

### 동문성악가가곡 신사 행운기원 퍼포먼스 인기

(김근준 고문 제의·1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강태 본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용마의 밤 축제는 우리 용마가족의 자존심”이라며 “도약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화합과 결속의 용마띠를 무한히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내빈소개에서는 안강태 본부 회장을 비롯, 권오현 김근준(이상 1회) 우명수(5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박동열(8회) 정행권(9회) 본부 고문과 김병기 오원수 현정춘(이상 11회) 자문위원, 김경희(9회) 재경고문과 홍용찬(16회) 차기 재경회장, 권명미 경남고 교장, 국회의원인 유기준(32회) 동문 등이 인사, 박수를 받았다. 또 본부 부회장이인 손부흥(15회)

지난 12월16일 저녁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05용마의 밤 축제는 전국에서 모인 용마가족 1,100여 명의 열정과 감동이 충천한 한마당이었다(사진). 서막은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화려한 오색 조명 속에서 추억의 7080 히트곡들이 색소폰 선율을 타고 수놓아졌고, 역대 용마의 밤 하이라이트와 휘황찬란한 레이저쇼가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안강태 본부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축제 2부 기념식은 오후 7시30분 김병수 사무국장(22회)의 사회로 막을 열어 개회선언(손부흥 부회장·15회)·내빈소개·회장 기념사·격려사(권오현 고문·1회)·축사(홍용찬 재경동창회 차기 회장·16회)·축하케이크 커팅·축배

송규정(16회) 남진현(19회) 이재호(21회) 박홍조(울산회장·22회) 김두천(26회) 최강호(28회) 김대욱(29회) 최거훈(30회) 정성운 동문(39회), 박호문(15회) 재경 사무국장, 마산-창원동창회 정상국(29회) 사무국장 등이 객석에서 인사,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제4부 신명풀이 버라이어티쇼는 오후 8시10분경 뷔페식 만찬이 끝날 무렵 모교 응원단장 출신인 김영화(29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 고전문무가 2명의 아름다운 춤사위 속에서 행위예술가 송강 김대현씨가 용마가족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막복을 올렸다. 커다란 붓끝에서 용마, 학, 하회

탈, 장승 등이 그려질 때마다 모두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동문 성악가인 전상건(울산시향·35회) 동문이 굽직한 바

리톤으로 '산촌', '금단의 노래'를 선물했다. 피날레는 나훈아 김건모 조용필 등 인기가수 모창 전문가 나건필의 열창이 객석을 사로잡았다. 이날 축제는 교가 제창에 이은 사회자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오후 9시10분경 막을 내렸다.

**행운대상 최영수(11회) 차지**  
이날 만찬과 공연 사이사이에 추첨된 행운상은 50여 동문들에게 안겨졌다. >행운대상(김치냉장고) 최영수(11회) >특상(오디오) 장인중(26회) >금상(공기청정기) 송영주(46회) >은상(DVD) 여성근(24회) >동상(무선전동포트) 박복수 동문(26회)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축하 회관은 부산 시내 중고 재경동창회협의회(회장 김경희 재경고문)·경북중고동창회(회장 한재희)·동래고동창회(회장 김병규)·동아고동창회(회장 김길출·18회)·한국추천관 대표)·부경고동창회(회장 노종현)·(주)부산롯데호텔(대표 이종규) 등에서 보내와 행사를 빛내주었다.

### 얼굴

### 박시환(26회) 대법관 발탁



박시환 동문(26회·사진)은 변호사 재임 중 최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현재 용마대법관으로는 양승태 동문(20회)과 박 동문 등 2명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동문은 이 대학 대학원을 수료한 후 해군법무관으로 활약하다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 수료)한 후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5공 당시 '법관인사파동'의 주역으로 찍힌 박 동문(반정부 가두시위 위반 즉심대상 대학생 11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영월지원 좌천이 도화선)은 이후 사법개혁을 줄곧 건의했고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대법원 수뇌부를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박 동문은 국가보안법 관련(96년 국보법 피의자만 3차례 구속기간 연장함에 반발)과 병역법 관련 조항(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민·형사 단독판사 △전주·인천·서울 남부·서울지법 부장판사 역임.

## “내년 졸업20주년 홈커밍데이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참여를”

### 제 40 회 동 기 회

고 문 서재원 1반대표 이태욱						윤경학	최민한
예진원 2반대표 최용석						이기록	최성우
정원철 3반대표 정용식						이상백	최수동
회 장 임태영 4반대표 이성대	이 사 강병룡	김정일	배영진			이정삼	최신일
부회장 김병주 5반대표 이 기	김강범	김철홍	백성대			이태근	야구감독 신영석
노인철 6반대표 이승배	김경환	김춘강	변태경			이호진	40Golf회장 노인철
옥진형 7반대표 유태문	김기수	문기성	성봉진			장갑구	재경회장 이흥기
조경태 8반대표 배진수	김동형	문태영	이 사 손옥명			장정욱	재경총무 김상우
감 사 한시용 9반대표 서재원	김병수	박근성	신정업			조상원	
수석총무 한수열 10반대표 추영준	김영진	박근식	심재혁			조찬우	
이과총무 정용식 11반대표 김성진	김용오	박동성	안성호				
문과총무 김성진 12반대표 한영탁	김재민	박재현	우영환				
	김정대	배병훈	유시문				

본부홈커밍데이추진위원장 정원철  
재경홈커밍데이추진위원장 김승환

홈커밍데이 기금계좌안내 : 제일은행 / 502-20-226572 / 경고40회 한수열 최소 30만원부터 형편에 맞게













